

고급 스마트폰 싸움에 ‘공짜폰’ 구입 적기

갤S7·G5·아이폰SE 출시로

기존 제품 출고가 대폭 인하

요금제 따라 상당수 무료

신규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되면서 ‘공짜폰’ 구입할 수 있는 적기가 찾아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과 G5를 각각 출시했다. 애플도 신규 모델 아이폰SE를 4월 초부터 국내 예약 주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제품 출가를 대폭 인하시키고 공시지원금도 확대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일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갤럭시S7 잠정출가는 32G 기준 85만 8000원, 갤럭시S7 엣지는 97만9000원이다. 아이폰SE는 약 57만8000원(64G 기준)이다.

LG전자도 지난달 선보인 전략 스마트폰 G5도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인데, 출가는 약 80만원대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면서 기존 20만~4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나오고 있다.



| 월요금제 | SKT | KT | LGU+ |
|----------------|---|--|------------------------|
| 2만9000~2만9900원 | 볼트, 갤럭시알파, 갤럭시S3, 갤럭시그랜드2, 와인스마트즈, 클래스, G2, F70, 아이폰4 | G스타일로, 넥서스5X, 갤럭시맥스, 갤럭시알파, F70, 엑스레리아C3 | Y6 |
| 3만6000원 | 갤럭시액티브 | - | - |
| 4만7000~5만1000원 | 갤럭시폴더, 밴드플레이, G2프로2 | 갤럭시센스, LG 아카 | - |
| 5만9900원 | 갤럭시그랜드맥스 | 갤럭시폴더, LG클래스 | - |
| 6만8000~6만9900원 | - | 갤럭시J7 | LG아이스크림스마트, 뷰3, 갤럭시줌2 |
| 8만원 | 갤럭시J5, 갤럭시맥스, 갤럭시노트3, G3 | - | 갤럭시S4, 젠틀, X3, 베가시크릿노트 |

자료:각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데이터 300MB가 제공되는 2만원대 요금제로 구입할 수 있는 공짜폰은 LG 전자 ‘G스타일로’, ‘Volt’, 화웨이 ‘Y6’ 등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G스타일로로 당시 51만7000원이었으나, 현재 29만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KT 299요금제를 선택해 구입하면 지원금 26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통망 지원금 15%까지 추가하면 할부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출고가 25만7400원인 ‘Volt’는 SKT ‘band 데이터 29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 25만7000원, 추가지원금 400원을 받으면 사실상 무료 구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LGU+와 중국의 화웨이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Y6’(출고가 15만 4000원)도 지난해 12월 당시 최저 요금제

공시지원금이 13만4000원이었는데, 지난 2월부터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다.

구글과 LG전자가 합작해 만든 넥서스5X도 반응이 좋다. 최근 LG전자가 넥서스5X 출가를 37만9500원으로 인하했다. KT 299요금제를 사용하면서 공시지원금 33만원과 추가지원금 등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출시 4개월 된 ‘따끈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신 공짜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도 있다.

지난해 중저가 스마트폰 가운데 인기가 높았던 삼성전자 ‘갤럭시그랜드맥스’(출고가 31만9000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 사용과 데이터 11GB가 주어지는 SKT ‘band 데이터 59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짜다. 이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 28만원을 받고 추가지원금 3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다.

또 갤럭시J7(출고가 36만9600원)은 기본데이터 15GB와 전화·문자메시지 무제한인 KT의 ‘699요금제’를 선택, 공시지원금 33만원과 추가지원금 3만9600원을 받아 공짜다. LG도 6만원대 요금제로 ‘뷰3’과 ‘갤럭시줌2’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요금제를 높일수록 공짜폰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뿐더러, 고가의 스마트폰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소 융합기술·동아리 창작 지원사업 선정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사진)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과학클럽 지원센터’에 각각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융합R&D기획의 체계적인 지원과 융·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발전략 등 R&D 과제 기획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만다.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2016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지원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과제발굴·기획·R&D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중소기업 과제가 선정되면 R&D사업기획을 4개월간 22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클럽 지원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학창작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과학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계층간 균형 있는 과학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클럽은 만 13세 이상 5~10명



으로 구성된 클럽별로 100만~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적정기술과 ICT메이커, 예술·인문·융합, 과학소통, 기타 등 5개 분야다. 우수콘텐츠를 발굴해 대한민국의과학의대전, 창조경제 박람회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과학클럽은 3월 중순 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 예정으로 전국적 200팀 2000명규모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 상담된 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대석 원장은 “이번 선정으로 광주지역 융·복합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부가 가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며 “과학을 테마로 한 모든 창작활동과 체험, 공연, 토론회 등 과학문화 활동을 펼치는 소규모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 과학클럽 지원센터도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일본 문학상 응모...두편 예선 통과

“그 날은 구름이 드리운 잔뜩 흐린 날이었다. 방안은 언제나처럼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씨는 그리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시시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본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쓴 소설의 일부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공지능에 소설을 쓰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일본 연구자들이 지난 21일 도쿄에서 보고회를 열었다.

일본 언론 NHK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주도한 마쓰바라 진 공립하코다테 미래대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쓴 4편의 단편 소설을 SF 작가 호시 신이치

의 이름을 붙인 ‘호시 신이치’ 문학상 공모한 결과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일부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략의 구성은 인간이 부여, 인공지능은 주어진 단어와 형용사 등을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소설을 썼다.

사람이 ‘언제’, ‘어떤 날씨에’, ‘무엇을 하고 있다’ 등 요소를 포함하도록 지시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있는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드는 식이다. 아직은 보조적인 역

할을 하는 수준이다.

마쓰바라 교수는 “1차 전형을 통과한 것은 쾌거”라면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미리 스토리를 결정해야 하는 등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스토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도 연구해 2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소설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NHK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전남지방우정청

선거우편물 비상근무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선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거기간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용지 회송우편물 240만통과 투표안내문 2098만통 등 선거우편물이 총 2857만통 소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선거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간(22~26일) 중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청은 또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협동조합원 전남지역본부 등과 ‘아름다운 선거 함께 만들기’ 공동캠페인 협약을 갖고 시·군 우체국 창구를 통한 투표참여 홍보와 고객창구 테이블 미니 홍보배너 설치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해제를 놓고 애플과 갈등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의 도움 없이 보안을 해제할 방법을 시험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샌버너디노 테러 수사를 위해 FBI에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과 관련해 열 예정이던 공판을 연기했다. 이는 FBI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AP통신은 “FBI가 전날 밤 공판 연기 신청을 했다”며 “한 외부인사가 FBI를 찾아 아이폰의 보안장치를 풀 방법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법원이 애플에 기술 제공을 명령했지만 애플이 곧바로 명령 취소를 신청하면서 기일이 잡혔다.

FBI는 샌버너디노 사건의 테러범 사에드 파록(28)이 사용하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은 거부했다. FBI는 아이폰에서 틀린 암호를 10번 이상 입력하면 저장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FBI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는 공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변론 취지서에서 애플이 중국 정부의 고객 정보 접근은 도우면서도 미 정부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에 완전히 암호화한 중국 고객의 데이터만 저장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백도어’(뒷문) 설치에 대해선 어떤 정부와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복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시제품 발표회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미 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시제품 발표회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미 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